

미 증시, 국채금리 상승에 변동성 확대

김석환 seokhwan.kim@miraeasset.com

미 증시 동향: 국채금리 급등

•미 증시는 8월 JOLTS 보고서에서 예상보다 많은 채용 공고 증가와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 영향으로 국채금리가 상승하자 낙폭을 확대. 금리 상승에 민감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2% 넘게 하락하였고, 다우지수는 올해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며 누적수익률이 마이너스(-)로 전환. 월가 공포지수인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지수인 VIX는 16개월 만에 최고치인 20을 상회하였고 채권 변동성을 추적하는 ICE BofA MOVE 지수는 지난 8월 21일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 (다우 -2.19%, 나스닥 -1.87%, S&P500 -1.37%, 러셀2000 -1.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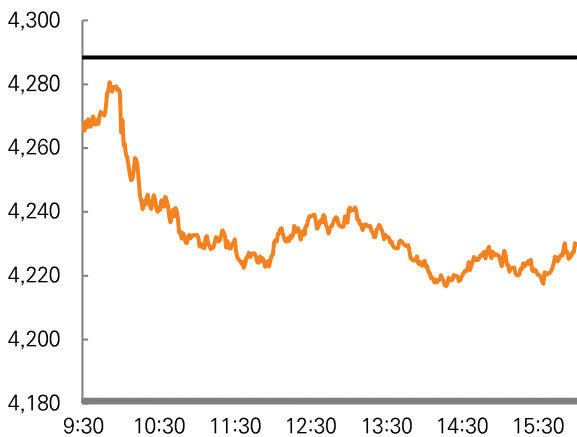
특징 종목: 금융 · 부동산 약세

•S&P 500을 구성하는 11개 섹터 중 유틸리티(+1.17%)를 제외한 10개 섹터 모두 하락. 특히 자유소비재(-2.59%), 부동산(-1.90%), IT(-1.82%), 금융(-1.67%) 등이 하락을 견인. 특히 골드만삭스(-3.89%), 아메리칸익스프레스(-2.96%) 등 금융주 약세 영향으로 다우지수는 올해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며 마이너스(-) 수익률로 전환. 여기에 S&P 500 은행(-2.02%)과 S&P 500 지역은행(-1.96%) ETF도 약세를 기록하며 6월 중순이후 최저치 기록

한국 증시 전망: 환율 변동 주목

•MSCI 한국 지수 ETF는 1.01%, MSCI 신흥 지수 ETF는 1.32%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59.37원으로 이를 반영한 달러/원 환율은 9원 상승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27% 하락. KOSPI는 0.5%~0.8% 내외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긴 연휴를 마치고 열리는 국내 증시는 9월 수출 경기 개선 및 美 연방정부 폐쇄 모면 등 긍정적 이슈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긴축 장기화 우려에 따른 장기채 금리 상승과 달러화 강세가 주식시장 투자심리를 불안정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 특히 주요국 장기채 금리가 수년래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국고채 금리 상승 압력을 키울 것으로 전망. 또한 달러/원 환율은 지난 해 11월 중순이후 최고인 1360원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증시 외국인 수급에 부담이 될 가능성 커 보여. 당분간 국내 · 외 장기채 금리 동향에 주목하며 시장 대응할 필요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Global Indices

지수등락률	Close	D-1(%)	지수등락률	Close	D-1(%)
KOSPI	2,465.07	+0.09	상해종합	3,110.48	+0.10
KOSDAQ	841.02	+1.59	홍콩항셱	17,331.22	-2.69
DOW	33,002.38	-1.29	베트남	1,118.10	-3.22
NASDAQ	13,059.47	-1.87	유로스톡스 50	4,095.59	-1.02
S&P 500	4,229.45	-1.37	영국	7,470.16	-0.54
캐나다	19,020.92	-0.81	독일	15,085.21	-1.06
일본	31,237.94	-1.64	프랑스	6,997.05	-1.01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변화 요인

① 구인 · 이직보고서 ② 베어스티프닝

미 증시는 8월 JOLTS 보고서에서 예상보다 많은 채용 공고 증가와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 영향으로 국채금리가 상승하자 낙폭을 확대. 금리 상승에 민감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2% 넘게 하락하였고, 다우지수는 올해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며 누적수익률이 마이너스(-)로 전환. 월가 공포지수인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지수인 VIX는 16개월 만에 최고치인 20을 상회하였고 채권 변동성을 추적하는 ICE BofA MOVE 지수는 지난 8월 21일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

8월 JOLTS(구인 · 이직보고서)

8월 구인건수는 전월 대비 69만명 증가한 961만명으로 시장 컨센서스인 880만명을 크게 웃돌며 전례없는 연준의 통화 긴축 정책에도 불구하고 노동 시장이 견조함을 나타냄. 직업별로는 전문 및 비즈니스 서비스가 50.9만명 증가하며 전체 구인건수 증가를 견인. 기업 규모별로는 재직자 5천명 이상 사업 부문에서만 전월대비 1천명 감소하였고 나머지 부문에서는 모두 증가. 특히 재직자 250명 미만의 중소기업의 구인건수는 46.1만명 이나 증가하였음.

전문 및 비즈니스 서비스는 ①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② 폐기물 관리 및 개선 서비스, ③ 회사 및 기업 경영 관리인데 이중 과학 및 기술 서비스가 약 50%를 차지함. 결국 이날 발표된 채용 공고의 특징은 AI 산업의 확대로 컴퓨터 시스템 설계 및 관련 서비스 등의 채용 공고가 스타트업을 비롯한 중소기업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음.

또한 지난 달 실직자 수는 635.5만명으로 2021년 11월(678만명)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이로 인해 실직자 1인당 일자리 수(구인배율)은 지난 4월 기록한 1.86개 이후 4개월 연속 하락한 1.51개 기록.

최근 주요 발언

국내 증시가 연휴로 휴장인 기간 동안 주요 인사들의 발언이 집중되었음.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 로레타 메스터(클리블랜드), 존 윌리엄스(뉴욕), 라파엘 보스틱(애들란타) 연은 총재의 발언에서 찾을 수 있는 공통점은 연준의 금리 목표에 대해 최고점에 도달했거나 거의 정점에 도달했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과 추가 긴축의 가능성보다는 ‘얼마나 (오래) 지속’할 지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것임. 또한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CEO는 재차 7% 금리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며 시장 참여자들의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음.

베어 스티프닝(Bear steepening)

연준의 긴축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며 美 장기채 금리가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음. 10년물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8월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연일 경신하며 4.8%를 기록하였고 30년물은 2007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4.9%를 기록하였음. 이에 지난 7월 초 -109bp까지 확대되었던 10년물과 2년물 간 금리 차는 -35bp까지 가파르게 완화된 ‘베어 스티프닝(Bear steepening)’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임. 현재 장단기금리차는 지난 3월 은행위기가 발발했던 수준까지 회복한 상태로 향후 고금리가 경제에 미치는 여파에 주목할 필요 있음.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위워크 급락

S&P 500을 구성하는 11개 섹터 중 유틸리티(+1.17%)를 제외한 10개 섹터 모두 하락. 특히 자유 소비재(-2.59%), 부동산(-1.90%), IT(-1.82%), 금융(-1.67%) 등이 하락을 견인. 특히 골드만삭스(-3.89%), 아메리칸익스프레스(-2.96%) 등 금융주 약세 영향으로 다우지수는 올해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며 마이너스(-) 수익률로 전환. 여기에 S&P 500 은행(-2.02%)과 S&P 500 지역은행(-1.96%) ETF도 약세를 기록하며 6월 중순이후 최저치 기록.

오피스 공유 플랫폼 회사인 위워크는 거의 14%나 급락하였는데 회사는 약 9500만 달러에 달하는 채권 이자를 지불하지 못했다고 공시. 이에 30일간의 유예기간을 갖고 채권자와 협상할 계획이라고 밝혀. 이에 보스턴 프로퍼티스(-5.24%), SBA커뮤니케이션즈(-4.17%) 등 동종 업계의 기업들도 동반 하락. 에어비앤비(-6.47%) 키뱅크가 여행 수요 완화로 인한 마진 축소를 이유로 투자 의견 하향 조정한 여파로 하락. 이에 카니발(-6.60%), 로얄캐리비언(-5.37%), 익스피디아(-3.21%), 델타항공(-3.32%), 아메리칸항공(-3.61%) 등 여행업종 전반 약세 기록. 넷플릭스(-0.94%)는 WSJ이 광고 없는 서비스 가격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후 장중 3% 넘게 상승했으나 차익 실현 매물에 하락 반전. 일라이릴리(-2.43%)는 14억 달러를 들여 암 치료제 개발 업체인 포인트바이오파마(티커:PN)를 인수한다고 발표하자 주가에 희비가 엇갈려. 피인수기업인 포인트바이오파마는 전일대비 거의 85%나 급등한 반면 일라이릴리는 하락.

반면 2020년 7월 이후 최저 수준까지 하락했던 유틸리티(+1.17%)는 최근 낙폭 확대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되돌리는 모습 나타나. 이에 퍼스트에너지(+3.10%), 서던컴퍼니(+2.10%), 넥스트에라에너지(+1.21%) 등 상승 기록.

상품 및
FX시장 동향

베어스티프닝

연준의 긴축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며 美 장기채 금리가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음. 10년물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8월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연일 경신하며 4.8%를 기록하였고 30년물은 2007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4.9%를 기록하였음. 지난 7월 초 -109bp까지 확대되었던 10년물과 2년물 간 금리 차는 -35bp까지 가파르게 완화되는 ‘베어 스티프닝(Bear stiffening)’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국 10년물 장기채 금리가 수년래 최고치를 기록하며 실질금리 상승에 따른 채권투자 매력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채권 시장으로 자금 유입 동향에 주목할 필요 있음.

또한 달러인덱스는 107선까지 상승하며 지난 해 11월 중순 이후 10개월 만에 최고치로 상승하였고 국제 금가격은 7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2022년 8월 이후 최장 연속 하락세를 기록.

한국
주식시장 전망

달러-원 환율과 금리

MSCI 한국 지수 ETF는 1.01%, MSCI 신흥 지수 ETF는 1.32%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 물은 1359.37원으로 이를 반영한 달러/원 환율은 9원 상승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27% 하락. KOSPI는 0.5%~0.8% 내외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긴 연휴를 마치고 열리는 국내 증시는 9월 수출 경기 개선 및 美 연방정부 폐쇄 모면 등 긍정적 이슈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긴축 장기화 우려에 따른 장기채 금리 상승과 달러화 강세가 주식시장 투자심리를 불안정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 특히 주요국 장기채 금리가 수년래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국고채 금리 상승 압력을 키울 것으로 전망. 또한 달러/원 환율은 지난 해 11월 중순이후 최고인 1360원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증시 외국인 수급에 부담이 될 가능성 커 보여. 당분간 국내·외 장기채 금리 동향에 주목하며 시장 대응할 필요.



주요국 장기채 금리 상승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XOP)	-0.38	대형 가치주 ETF (IVE)	-1.41
클린테크 ETF (CTEC)	-3.44	중형 가치주 ETF (IWS)	-1.39
소매업체 ETF (XLY)	-2.43	소형 가치주 ETF (IWN)	-1.56
온라인소매 ETF (EBIZ)	-3.00	대형 성장주 ETF (VUG)	-1.85
미국 인프라 ETF (PAVE)	-0.94	중형 성장주 ETF (IWP)	-1.79
핀테크 ETF (FINX)	-3.15	소형 성장주 ETF (IWO)	-1.72
소셜미디어 업체 ETF (SOCL)	-1.03	퀄리티 배당주 ETF (QDIV)	-0.93
클라우드 ETF (CLOU)	-2.50	신흥국 고배당 ETF (SDEM)	-1.86
사이버보안 ETF (BUG)	-2.43	신흥국 저변동 ETF (EEMV)	-0.86
전기차&자율주행 ETF (DRIV)	-2.28	미국 국채 ETF (IEF)	-0.83
글로벌 2차전지 ETF (LIT)	-2.70	하이일드 ETF (JNK)	-1.02
바이오섹터 ETF (IBB)	-1.09	신흥국 채권 ETF (EMBD)	-0.92
로봇&AI ETF (BOTZ)	-2.27	물가연동채 ETF (TIP)	-0.71
반도체 ETF (SMH)	-2.22	미 투자등급회사채 ETF (LQD)	-1.15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유틸리티	288.42	+1.17	-7.34	-8.76
에너지	680.80	-0.02	-1.44	-1.53
소재	486.63	-0.30	-0.78	-7.51
필수소비재	717.79	-0.68	-2.08	-5.26
산업재	843.45	-0.74	-1.06	-8.08
헬스케어	1,485.96	-0.91	-1.79	-4.31
커뮤니케이션	222.32	-1.40	+1.01	-2.70
금융	537.64	-1.81	-3.02	-6.54
IT	2,890.63	-1.82	+0.73	-7.59
부동산	206.09	-1.90	-3.26	-11.09
경기소비재	1,234.72	-2.59	-1.22	-7.69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글로벌 FICC 동향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89.23	+0.78	-0.97	Dollar Index	107.041	+0.13	+0.76
브렌트유	90.92	+0.37	-1.49	EUR/USD	1.0465	-0.11	-1.01
천연가스	2.95	+3.56	+10.73	USD/JPY	148.95	-0.61	-0.08
금	1,841.50	-0.40	-4.16	GBP/USD	1.2078	-0.07	-0.66
은	21.38	-0.19	-7.83	USD/CHF	0.9211	+0.30	+0.58
알루미늄	2,290.00	-1.34	+2.07	AUD/USD	0.6302	-0.96	-1.49
전기동	8,006.50	-0.58	-1.04	USD/CAD	1.3710	+0.25	+1.43
아연	2,502.00	-3.79	-0.36	USD/RUB	99.8551	+0.58	+2.87
옥수수	487.50	-0.20	+1.67	USD/BRL	5.1661	+2.05	+3.52
밀	568.50	+0.66	-3.48	USD/CNH	7.3187	-0.05	+0.12
대두	1,272.75	-0.20	-2.17	USD/KRW	1,349.30		
커피	148.75	-0.23	-1.39	USD/KRW NDF1M	1,359.37	+0.27	+0.54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4.793	+11.49	+25.78	스페인	4.070	+7.40	+16.50
한국	4.012	-4.30	+6.00	포르투갈	3.711	+4.20	+13.30
일본	0.767	-1.00	+2.60	그리스	4.482	+7.80	+17.40
독일	2.968	+4.60	+16.00	이탈리아	4.939	+13.30	+19.70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